

서포인의 '좌측담장'



2호선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앞에서

주말이 가까웠지만 어쨌든 평일 저녁이다. 3만 명에 가까운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구장의 입구에 나는 서 있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정면에 잠실구장의 3루 측 외야의 거대한 바깥형체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로부터 열흘 전, 나는 원하는 좌석을 예매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포수 뒤편이나 응원단상 앞 또는 '익사이팅 존' 같은 인기 있는 자리를 탐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내야 어딘가, 주로 상황이 벌어지는 내야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슬쩍하는 예매, 잠시 업무상 통화를 하느라 정각에 접속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기아 팬들은 금요일 밤을 잠실에서 보낼 계획을 완성해 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사라져가는 자리를 모니터를 통해 망연히 지켜보던 나로서는 외야 자리라도 예매한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른바 원정 팬이 되어 버린 건 광주를 떠난 2009년부터다. 그렇다 2009년. 기아가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한국시리즈마저 제패했으며, 심지어 시리즈 7차전 끝내 홈런으로 우승을 결정지은 한 해다. 그때 나는 불광동에 월세를 찾아다니며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실감하고 있었다. 지하철에서는 길을 잃을까 봐 노선도를

꼼꼼히 노려보며 지금의 내 위치를 확인했다. 고향과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발을 맞추려 무릎에 힘을 주었다. 배움을 위해, 좋은 직장을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서울로 올라온 많은 이들이 그랬을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딘가는 고향이고 그 외에 많은 곳은 타향이니까. 조금은 외로웠을 것이다. 가끔은 서러웠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야구는 잠으로 힘이 되어 주었다. 온 동네 식당마다 기아 야구 중계에 채널이 맞춰져 있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너나 나나 한 팀을 응원하는 도시에서의 느낌과는 달랐다. 원정(타향)의 팬이 받아들이는 각별한 감수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친구들은 늦었다. 대학 수업 마치고 한가한 시간에 무등구장을 찾아 일찍이 자리를 잡고 맥주나 마시던 무리들이 어느새 서울의 직장인이 되어 퇴근길 러시아 위에 몸을 싣는다. 잠실에서 가까운 순서로 전철 출구 앞에 모인다. 자판에서 파는 응원 도구와 홈팀의 깃보다 노란색 기아의 것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빨강과 하얀 유니폼에 양현종이며 김선빈, 안치홍 등 인기 선수의 이름을 마킹한 팬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옮긴다.

일행을 기다리는 길에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

게 총동구매, 빨간색 유니폼 하나를 골랐다. 마킹은 고민 끝에 '이명기'로 한다. 데뷔 후 줄곧 인천에서만 야구를 하다 올해 광주에 온 선수다. 트레이드 후 첫 경기에서 수비 실수를 했는데 그럴 텔레비전으로 보던 나는 주저함 없이 욕을 했다. 어디서 저런 선수가 왔어! 지금은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 채 자주 감탄한다. 어디서 저런 (훌륭한) 선수가 왔어! 한 때 비난했던 미안함에 카드를 굵은 손이 아주 당당하다.

올해는 오랜만에 이기는 날이 많은 시즌이다. 그것도 꽤 많이 이겨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잠실구장의 원정 팬들은 3루 측 외야석은 물론이고 전광판을 기준으로 1루 쪽으로도 꽤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저들도 나처럼 가끔은 외롭고 서러운 사람일일까. 꼭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도 그냥 기아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빨간 유니폼을 입고 승한 여름 저녁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작정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보내는 동안 경기는 진행되었고, 기아는 또 승리를 챙겼다. 이명기는 안타도 쳤고, 약점이라던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등에 새긴 이름을 강조하

며 내가 선수라도 된 것 마냥 의기양양했다. 경기 후 잠실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교통정체도 여전했지만, 위안을 받았다. 그걸 공놀이가 뭐라고 위안을 받을까 싶지만 광주를 떠나 서울 근처에 자리를 잡은 이후 나를 가장 위안했던 것은 결국 이 공놀이였다.(물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서울에 기아 팬이 이렇게나 많은 데에는 분명 정치·사회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나의 직업인 출판업만 따져 보더라도, 대한민국 출판사 대부분이 서울과 서울 근처에 몰려있고 집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좋은 대학을 위해 서울로, 좋은 직장을 위해 서울로, 좋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수도권 인구는 과밀해지고 지방 도시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잠실구장의 반 이상을 광주 언고지 구단의 팬이 채우는 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신천(잠실구장 근처 유흥가)에는 2009년의 기억을 간직한 채, 2017년의 우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걸 공놀이가 뭐라고, 그것 공놀이에 환장하여, 그걸 공놀이에 위안을 받으면서. (시인)

커피 원장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5년 9월, 이름도 생소하던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 열렸다. 들뜬 도시 분위기 속에 실수도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내가 직접 겪은 작은 일 하나는 두고두고 잊히질 않는다.

개막식 전날 광주엔 주한 외교사절들이 다수 모였다. 이들에 대한 안내는 외교관 출신인 박영철 광주시 자문대사가 맡았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이 열렸는데 행사장 정리가 미처 안되어 30여명의 각국 대사 내외가 1층 커피숍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9월이지만 무더웠다. 박영철 대사는 기다리는 동안 이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불러 주문을 받았다. 망고주스, 딸기슬러시, 파인애플파르페, 키위주스 등 주문은 다양했다. 박 대

삼계탕 사건

사는 일일이 이를 종업원에게 통역해주었다. 그때 따분한 표정으로 기다리던 여종업원이 말했다. “그냥 키위주스로 통일하세요” 20년 전 광주의 무궁화 다섯 개 짜리 호텔이 이 수준이었다.

10년쯤 세월이 흘러 광주공항에서 겪었던 작은 소동도 잊히질 않는다. 공항대합실을 나와 택시 정거장에 늘어난 긴 줄에 섰다. 내 택시들이 언덕이 손님을 태워 떠나고 내 차례가 왔다. 그런데 내 앞에 선 택시가 유독 더러웠다. 소나타2였는데 차체가 낡은 건 물론이고 뒷좌석 문을 열고 본 시트가 구질구질했다. 역한 냄새도 확 끼쳤다. 나는 차문을 닫고 다른 차를 타겠다고 했다. 뒷사람에게 차례를 넘기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내 뒷 분도 이 택시는 안타깝다고 한 것이다. 긴 줄에선 차례를 재촉하고 나는 비교적 깨끗한 다음 택시를 타려는데 이번엔 그 택시 운전사분이 나를 안내하는 것이었다. 앞차를 타라는 거다. 긴 줄을 기다린 동료택시의 손님을 자기가 가로채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의 앞 택시 운전사께서 차문을 열고 나와 내게 외쳤다.

“아저씨, 어찌 그러요?” 어찌 그러기든, 더러워서 그러지. 차마 이 말은 못하고 나는 소동을 벗어나 다시

긴 줄의 맨 뒤로 가서 새로운 차를 기다렸다. 더러운 택시엔 결국 다른 너그러운 분이 타신 것 같았다.

도시공동체 생활에서 차례가 가 된 택시를 두고 다른 택시를 골라 타겠다는 내가 응출했을 수 있다. 그러나 150만 도시의 택시운전자라면 차량 관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고 본다. 어찌 그러느냐는 그 운전사의 투박한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길래 유별을 떠느냐는 핀잔일 터. 10년 전쯤 광주의 택시수준은 이랬다.

얼마 전 식당에서 겪은 사건도 내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무더운 날 동로교수 몇 명에서 광주 서구 풍양동의 한 삼계탕집엔 갔다. 삼계탕을 주문해 막 한 순갈을 뜨려는데 50대쯤 돼보이는 여종업원이 젓가락을 들고 황급히 오더니 테이블을 한번 훑 돌려보고 다짜고짜 나의 삼계탕에서 전복 한 개를 집어내는 것이었다. 일행이 모두 놀라 말문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그녀는 “주문이 잘못 들어갔네요”라며 국물이 푹푹 떨어지는 그 전복을 들고 주방 쪽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주인을 불러 항의하면서 상황 파악이 됐다. 그 식당 메뉴에는 삼계탕과 전복삼계탕이 있고

우리는 그냥 삼계탕을 주문했는데 그 종업원이 실수로 다른 테이블로 갈 전복삼계탕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았던 것이다. 당황한 그녀는 손님이 먹고 있는 삼계탕에 ‘젓가락 데려’를 감행한 것이다. 젓가락으로 건져간 그 전복 한 개가 어느 삼계탕 그릇에 착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주인의 사과에 얄만 일로 치고 식사를 마쳤지만 이게 이 도시의 수준이라 생각하니 씁쓸했다.

도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광주가 ‘키위주스로 통일하세요’때 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내 느낌엔 아직도 더 배운다고 고쳐야 할 일들이 많다. 세월이 가고 교육수준과 개인별 소득이 올라가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시간과 교육과 돈이 드는 건 남들도 다 하는 거다.

광주가, 호남이 맛과 맛과 의로움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려면 시민 모두가 철학자가 될 필요가 없endő, 좀 더 평균적 수준이 올라갈 필요가 절실하다.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개인의 품위와 교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보다 확 없었으면 한다.

기고



강진원 강진군수

올 여름에는 청자 한 점 사러 강진으로

강진군은 청자조합원 등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경영형 축제로서 청자판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할인 판매와 함께 매일 청자판매점 입장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고 소품 및 생활자기 위주로 하루 한 차례 즉석경매를 실시한다. 폭탄세일 행사를 통해 다기세트 등 정형화된 상품을 정가 기준 할인 폭을 70%까지 적용한다.

청자판매 경품 이벤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시가 3천만원 상당의 80cm 크기의 청자매병 경품타기이다. 축제기간중 청자판매장에서 청자를 구입하면 10만원 당 청자경품 응모권 1매를 준다. 이와함께 기존 청자판매장과 민간요 판매를 위한 대형텐트 부스를 바로 연결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다 편하게 만들었다. 청자 판매기간은 축제기간 앞뒤로 이달 28일부터 8월6일까지이다.

이러한 지역 소득형 강진청자축제에 시민함과 흥미를 더해 가미했다. ‘시원함 이 곧 여름 선물’이란 콘셉트 아래 천년 비석의 역사와 문화를 놓치지 않고 ‘놀이 터’를 만들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150m 길이의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다.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뒤편 산자락에서 높낮이를 이용, 수영장까지 이르는 환상의 물길을 만들어 여름 한 낮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스트레스는 날리고 기분은 그야말로 치솟을 것이다. 강진의 푸소(FU-SO)체력저렴.

워터 슬라이드 끝자락에는 ‘수영장 점토 밭기’코너가 마련돼 물놀이와 함께 한 여름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점토를 밟으며 물과 흙의 조화,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오는 워터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것이다.

청자촌 체험부스에 마련된 ‘시원함 점토 바디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아이, 연인, 중장년층 모두가 참여해 진흙을 만지고 문지르고 밟는 체험이다.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칠 수 있는 실개천을 대폭 확대했고 축제장 곳곳에 간이 샤워장을 충분히 갖췄다.

어린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자 매력 넘치는 강진 명소는 강진 청자축제장 밖에도 무궁무진하다. 축제장에서 10~20분 안에 깨끗한 청정수 계곡

물을 온 몸으로 느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강진 3대 물놀이장이 있다.

축제장 인근 칠량면 초당리 물놀이장은 960ha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인공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물놀이장 3개소, 데크 워터 놀이장 2곳, 강진읍내 보은산 V-랜드는 보은산 고성사 바로 아래계곡에 1107㎡ 면적에 4개의 물놀이 시설, 워터마킹 파고라와 175m 길이의 데크가 있다.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남도의 소금강’ 석문산 계곡에 있다. 강진 물놀이장은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입장료는 없다.

울창한 숲과 바람소리까지 시원한 계곡, 여기에 역사문화유산의 향기와 신나는 축제까지 한 묶음으로 돼 있는 곳이 바로 강진이다.

여기에 가우도 출렁다리도 청자타워, 쥘트래, 주말 마량놀토수산시장까지 이어지는 강진여행은 올 여름 최고의 선물이다. 기록을 보충하려면 강진회춘당을, 시원함을 좀 더 느끼려면 강진물회를 드시면 된다.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강진청자축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청자의 품격이 살아있고 시원함이 함께 하는 곳, 강진으로 오라.

社說

지방 공간 채우는 고향세 알맹이가 튼실해야

“고향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 줄 알토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출향한 도시민들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시행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국회에는 이미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재수·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문 대통령 공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수도

권 거주자가 연소득의 10%까지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고향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출향인 중 경제활동인구(180만 명)의 25%가 기부에 참여한다고 추정할 때 45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면 연간 4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추진 방향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기부 대상 지자체의 범위와 기부금 한도 설정 등을 꼼꼼히 설계해 시행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냉방용 전기 요금 지원 왜 우린 안 해주나요

광주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극심한 비행기 소음 탓에 여름철이면 아예 창문을 닫고 산다. 정부는 이 같은 항공기 소음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하절기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가동할 수밖에 없는 냉방기의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원은 민간요항 주민에만 국한돼 있고, 광주·수원·대구 등 군 공항 지역 주민들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냉방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7~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공항 주변 주거시설에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가 매달 5만 원씩 지원된다.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들이 일반 가정에 비해 냉방기를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고려한 조치이다.

언뜻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행정 같지만 문제는 지원 대상이 민간 공항 주변 주민들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주 등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간 공항보다 군 공항의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민간 공항 주변만을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영터러 아니냐’는 것이다.

군 공항 가운데 광주는 특히 소음이 심각하다. 광산구 우산동과 송대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도가 1년 중 9개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90웨벨(WECPNL) 수준으로 소음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소음도는 75웨벨이다. 2016년 광주 항공기소음측정망 측정 지점 7곳의 항공기 소음도는 모두 75웨벨 이상이었다. 누가 봐도 소음 피해 보장 대상에 민간 공항 주변만을 넣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장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군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냉방비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사고가 날 뻔했다. 주차장 오르막을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화를 삭이는데, 좀 전의 그 오토바이(택배) 운전자가 저 멀리 멈춰 서더니 손짓을 하며 뭐라고 하는 듯했다.

순간 더 열이 올랐다. “뭘 잘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지가 잘못해 놓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며 나도 한마디 하겠다는 마음으로 창문 유리를 내렸다. 막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땀으로 범벅된 그가 말했다. “정말

그날 꿈이 생각돼 보았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거라고 확신한 걸까. 난폭한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을 것이지만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심리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최근에는 매달 전기료가 죽을 때까지 올라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비실 에어컨 살지를 반대한 주민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전기요금이 아깝다며 누군가 기부한 경비실 에어컨에 비

오토바이기사의 교훈

를 씌우고 계랑기까지 달아 놓은 주민들도 있었다.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

만큼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다.

얼마 전 제사가 트레이시의 ‘프라이드’를 잃었다. 책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는 ‘프라이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탐구다. 책을 소개한 프라이드에 대한 솔한 장점보다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부심이지만,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 또한 자부심이다.” 인간에 만연한 ‘오만의 자부심’을 경계하라는 대목이다. 죄를 지어서인지, 잃으며 더 뜨겁했다. /김미은 문화부 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